

[애국소설] 임팩트 코리아(제9화): 주미특파원 친구를 만나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브리핑을 로버트 박사에게 마친 제이슨은 시내에 있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 숙면과 휴식을 취했다.

그 다음날 미팅은 어느 언론계 친구를 만나기로 하는 스케줄이었다. 미국 주재 특파원으로 워싱턴DC에 파견나와 있는 그 이름이 장동선이라는 친구인데, 한국에서부터 옛 인연이 있는 사이였다.

장동선은 유력일간지(有力日刊紙) 코리아일보 주미특파원(駐美特派員)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의 기원은 적지 않은 세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동선은 대학 졸업 직후, 곧바로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다.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다는 모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재학 시절부터 다방면에 학문적 흥미를 느꼈다.

집안에서 적극적으로 강권을 해서 법대에 진학을 하기는 했지만, 학부시절에 이런저런 교양과목을 접하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사회과학쪽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언론학을 필두로 그 인접학문과 융합학문에 엄청난 집중도를 보이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소화하고자 줄기찬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학부과정 특성상 대학교 수업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세부 분야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장동선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는 수업에서는 국내 관련 도서는 물론 외국어로 된 책과 자료들도 독파해 가면서 관심 분야를 광범위하게 넓혀갔다.

타전공 교수들이 보기에 어느 법대생이 자기들 수업에 들어와서 대단히 열성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시간에 그 학생이 들이대는 질문의 수준이 대단히 높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여러 교수들의 주목(注目)을 끄는 법대생이었다.

친밀하게 지내는 주변의 법대 공부파 동기생들은 1학년 초반 약간의 대학생활의 맛을 본 후에, 1학년 2학기부터, 또는 늦어도 2학년 때부터는 법조인이 되는 코스에 집중하는 길로 본격적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장동선은 굳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생각이 대학 초반부터 그다지 없었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지식습득에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기생들과는 그 결이 달랐다. 결국 이러한 개인성향은 장동선이 졸업후 언론계로 진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이슨과 장동선이 만나게 된 계기는 대학 졸업 후 어느 시민단체의 격렬한 집회현장에서 이

루어졌다.

장동선은 그때 코리아일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던 모인터넷신문에서 기자로 연습삼아, 그리고 재미삼아 글을 쓰고 있었다. 제이슨도 다른 인터넷매체에서 기자로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틈틈이 NGO 단체의 홍보업무도 대변인격으로 도와주고 있던 참이었다.

이후 얼마간의 언론계 경력이 쌓인 장동선은 그 실력을 검증받아, 국내에서 이른바 ‘일등가갓다’는 포부의 코리아일보로 경력직으로 스카우트되어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장동선이 제이슨을 인정하는 이유는 명쾌했다.

자기도 대학재학 시절 여러 학문분야를 잡식(雜食)으로 습득해서 나름대로 동기들에 비해서 건방질 정도로 학문적 허세도 있었지만, 제이슨과 대화를 우연하게 시작해 본 이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인간은 뭐하는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이슨은 자기보다 차원이 다르게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 교수들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러 서구의 학문 이론들도 줄줄이 꿰고 있었고, 더 인상깊은 점은 그런 이론들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분석적으로’ 자기 시각으로 재편성하는 능력과 시각이었다.

아무래도 제이슨의 학부 전공이 영어영문학 계통이라서 출중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폭넓게 학문지식을 연마해 온 점이 그런 요소를 작용했을 것이다.

장동선은 법대생이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영어 좀 한다’고 자부하던 터였고 입시성적에서 영어점수도 최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남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도 자주 내뱉어 가면서 설명도 곧잘 하곤 했다.

굳이 영어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서구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핵심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영어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이슨은 평소 대화시에 한마디도 영어단어를 사용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장동선도 제이슨이 영어전공인줄 몰랐다가, 아주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이슨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단어 사용 없이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장동선은 나중에 깨달았다. 제이슨이 영어분야의 초절정 고수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장동선은 국제문물에 관한 분야라면, 제이슨에게 한수가 아니라 몇수 접고 들어가서

한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곤 했다.

장동선과 제이슨이 드디어 오랜만에 이국땅에서 만나게 됐다. 이번 미팅은 마침 워싱턴DC 프레스클럽 빌딩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장동선이 20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이슨도 마침 약속시간 5분 전에 도착했다.

“어이, 오랜만이야, 동선이..”

“그래, 오랜만이네, 제이슨..”

(계속 됩니다...)

[작성] 애국튜브 편집부  
[www.aeguktube.com](http://www.aeguktube.com)

[작성일] 2023년 5월 20일